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인내로의 초대

(약 1:1-4)

The Invitation of Perseverance

(James 1:1-4)

야고보서는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귀한 영적 교훈들로 가득한 서신서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ook of James is very short but it is really full of precious and spiritual lessons.

1. 발신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초대교회 리더로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를 가리켜 ‘기둥같은 야고보’(갈 2:9)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도들 간에 열띤 토론을 벌일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하는 것만 가르치자”고 제안하므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Sender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of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James 1:1)

James appeared in this book was probably the brother of Jesus and leader of the early church who became very prominent in the early church. Paul called him a “pillar” of the church (Gal 2:9).

We could find out that in the famous council at Jerusalem in Acts 15, when James jointed an zealous discussion among the Apostles about how they had to proclaim the Gospels, he submitted the following proposal, “Spread only the Gospel of Jesus Christ, but teach keeping away from the filthy idol, immoral conduct, death by hanging, and blood.” And then all people including Paul and Barnabas agreed to that word and the session closed.

2.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흠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러나 여기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디아스포라가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도 자신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인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Receiver

The receiver of this letter was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However, the twelve tribes mean that the reason why the Israelites who were not descent from Israel believed in Jesus made them to be persecuted and became Diaspora. James, himself, wrote this letter was recognized as a saint who believed Jesus Christ a Jew rather than he was descent from the Israelites.

3. 인내로의 초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약 1:3). 인내는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인내란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3. The invitation of perseverance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matter kinds” (James 1:2).

A large number of questions among Christians is that, “Why do we have such heavy hardship?” But James, the Apostle said that the testing should be considered as pleasure because the testing of your faith would develop perseverance (James 1:3). Perseverance makes us intact and full and makes us live our abundant life without wants. Perseverance is

the power of which we endure for a long time, and the patience of which we never giv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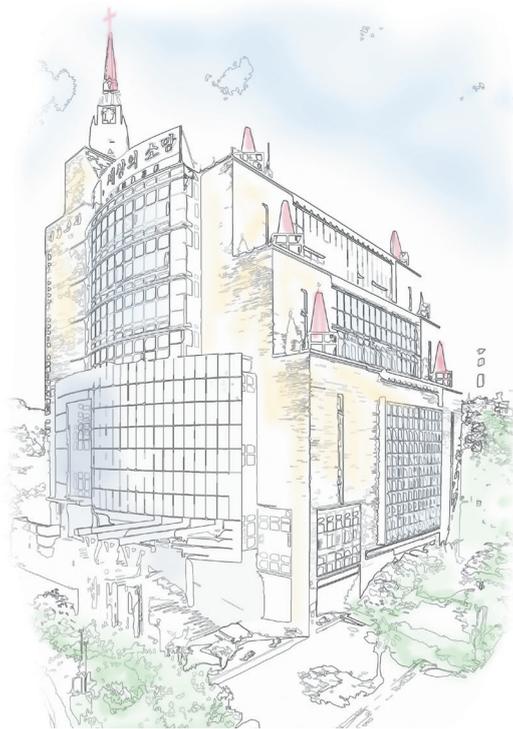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세상에서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How much trial and hardship are you situated in? But when you endure the most trial and hardship and overcome with faith, God will lead you to a victory. It is God who does not give us trial and hardship. By the perseverance that starts to get settled in us, God will accomplish his purpose in no distant future. By looking at only God and achieving the complete perseveranc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victory in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공동의회

제 15대 집사, 제14대 권사 선출 - 오늘 찬양예배 후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로 오늘 5월 15일 (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모인다. 모든 성도들은 오전 10:00부터 찬양예배전까지 투표권을 수령하기 바란다.

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투표인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택된다. 동점자 처리는 연장자, 수세연

도, 교회등록일 순으로 한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누구나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홍해작전 기도 제목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흥해를 건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2.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4.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5.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6.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부 수련회

소망부(지도 서준권 목사, 부장 김종철 집사)는 매년 5월, 어버이날을 전후 하여 경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21일(토)에 베델하우스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단 하루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심으로 인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사에 교회 전체의 어르신들을 같이 모신다는 의미에서, 소망부 부서의 행사라기 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취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전체에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므로 인하여, 요즘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서울교회만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교회전통을 세워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체육대회

- 5월 21일(토) 1교구 - 양재천
- 7교구 - 덕수궁
- 8교구 - 북서울 꿈의 숲 공원
- 11교구 - 남한산성 둘레길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성경에서 본 교회와 국가

(롬 13: 1-7)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특별히 가정제도, 국가제도 교회제도를 설정해 주셨다

1.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매우 애매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호한 점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면서도 교회 안에 권위주의와 신학의 오류, 혹은 신조의 잘못된 주장이나 세속적인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 운영되어지는 경우이다.

반면에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국

가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협력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국가는 거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러니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다.

요한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영, 육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관 모두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면치 못하는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 관계 속에 있다.

2. 교회와 국가 간의 책임 관계

마태복음 22:21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제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할 경우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도자나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존경과 복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지도자나 정부의 체제를 국민들이나 성도들이 원치 아닐 경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합법성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게 하고 정의가 그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며 동시에 도덕성이 그 사회와 국가 단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정부, 혹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영

역은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 진척시키는 데 있다. 반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과업에 헌신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3. 하나님과 가이사의 권위 문제

성경은 국가와 교회가 아주 다른 권위의 영역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기관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했으며 그러기 때문에 상호 보충적이 기관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강한 억압이 와도 실제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하며 동시에 모든 면에 복종할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영원한 권세이다.

(다음 주 계속)



사복음서와 성령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 되셨고(마 1:18-23; 사 7:14; 눅 1:35),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마 3:16; 막1:10; 눅 3:22; 요 1:32).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늘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마태복음 3:16-77의 기록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후대의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로 요약한 성경의 가르침이 암시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표현은 아마도 창세기 1:2에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노아의 홍수 뒤에 비둘기가 새로운 창조를 알렸던 것(창 8:11)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심판 뒤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새 창조의 중심에 예수가 서 있고 그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며(막 1:12; 마 4:1; 눅 4:1) 그곳에서 그는 악한 세력의 대표자인 사탄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예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고, 병자를 고치며,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마태는 12:17-21에서 이런 그의 사역을 이사야 42:1-3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구절에서 핵심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마 12:18)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16-21에서도 역시 예수는 그의 사역과 이사야 61:1-2을 연결하며 그 연결의 핵심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이고 악한 영의 힘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공격하지만(마 12:24; 막 3:20-30; 눅 6:43-45; 11:14-23; 12:10)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대답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이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에서도 "나"(예수), "하나님," "성령"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의 자의식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성령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행 10:38)고 말하여 삼위일체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13에서 예수는 우리가 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49에서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하십니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power)을" 받게 됩니다(행 1:8). 예수는 "약속하신 성령을



김철홍 협동목사
(장신대 신약학 교수)

“
성령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보혜사는 예수가 주시는 선물

성령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보내어져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

아버지께 받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행 2:33).

누가는 초대교회의 팽창과 복음의 전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이고(행 8:29),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사건 때처럼 성령이 그 모두에게 임했고(행 10:44-45),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사실은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에 관한 그들의 결정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으로 인식했습니다(행 15:28). 사도행전 8:9-13에 나오는 시몬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19:1-7에서 나오는 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열 두 제자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공관복음과 상당부분 겹치면서도 요한의 독특한 성령 이해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23-24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곧 예수이며(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34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는 "사람이 물

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말씀하시며 여기에서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사 44:3; 겔 36:25).

요한복음 7:37-39에서도 물은 곧 성령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에서 사실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명하십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부활사건 직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며(요 7:39), 그가 승천한 뒤에 성령이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혜사(parakletos)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 단어를 법정 용어로 보고 "변호자"(advocate)로 이해하거나 혹은 "조력자"(helper), "권고자"(counselor)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16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는 자신을 보혜사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일서 2:1도 예수를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요 14:17,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요 14:17; 15:26; 16:13)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14:27),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요 14:16).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리스도가 구할 때에 주십니다(요 14:16).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혜사는 곧 예수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15:26에서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성령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보혜사는 예수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떠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그들을 깨우쳐주시고 가르치시며(요 16:13)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요 16:8). 그렇게 하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요 16:14,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먼저 임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으며, 후에는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확장에 주역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보내어져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김영희 집사
(중등부 부장)

중등부 부장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중등부를 섬기기 시작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중등부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보조선생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임명받아 섬기는 부서에서는 보조 선생님 제도를 두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선생님들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순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빠지면 누가 대신 그 자리를 채우지?'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매주 선생

님들 전체가 출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부모 초청예배, 소망의 집 봉사, 성경학교 등 그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서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중등부의 경험이 없던 부족한 저에게 좋은 안건으로 협력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것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때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마음에 부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를 겪는 중등부에서 봉

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당장 열매가 안보이고 힘이 들때도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셔서, 주중에 연락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기도하고, 중등부의 그 많은 행사를 감당함에 수고와 피곤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등부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진광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신앙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정수은 집사
(9교구)

어버이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6,7세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율동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 우리집 셋째 재호가 있었기에 그 아이들이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나봅니다. 내 아이의 눈빛하나 입모양 하나 손짓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혼잣말로 '잘하네, 귀여워, 저걸 언제 외웠지?'를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동작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율동과 찬양을 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을텐데 저는 그 유치부선생님들의 노고는 생각도 안하고 오직 제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게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배운 찬양을 흥얼거릴 때도 무심결에 들려들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해 신앙이 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책을 한권 더 읽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아이들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값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때때마다 본인의 귀한 시간 내어 봉사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재호는 유치부를 졸업하지만 막내 재하가 유치부로 갑니다. 그때도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주일엔 반가운 얼굴로 우리 아이를 맞아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호선생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편지 한 장 써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8일(수) 송실대 교수,직원,학생수요예배 설교를 한다. 20일(금) 서울여대개교55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한다. 21일(토)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대표모임을 소집한다.

■ 전광영 집사 전시회 : 5/20(금)-9/30(금) 경주 우양미술관 (구)아트선재미술관 초대일시: 5/20(금) 오후 5시

■ 사임 : 신앙강좌부 지도 원종천 목사(건강상의 사유로)

■ 주일식당봉사 : 이삭 선교회(5.18)
엘리아 선교회(5.25)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2. 오늘 찬양예배 후에 있을 향azon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다락방과 교구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